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중국 CJ법인

# 대학생 취업전선, 중국으로 확대

전북 5개 대학, 식품관련학과·경영마케팅 디자인 분야 학생들 현지 취업 프로그램 추진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중국 CJ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달 31일 중국 CJ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전북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현지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은모 CJ 상해지역 수석대표, ▲박정훈 화동지역 법인장, ▲윤명숙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추진위원장 ▲정수진 원광대 국제 교류처장, ▲김동익 군산대 산학협력 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5개 대학은 식품관련학과 경영마케팅, 디자인 분야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업단은 도내 농생명·한문화 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품관련학과와 연계된 글로벌 기업에 중국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취업시켜 한국유학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1월 중순 전북대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합격한 중국 유학생은 중국 상해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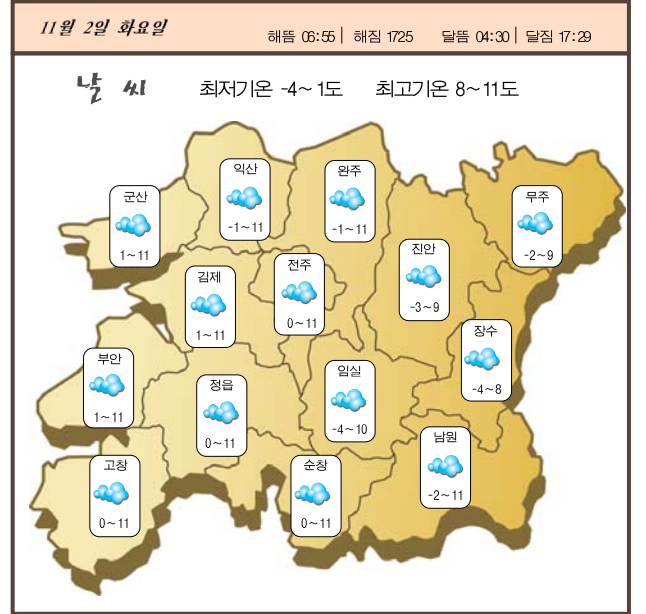


**국화의 변신** 1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화훼온실에서 연구원들이 품평회를 앞두고 새롭게 개발된 국화 계통과 품종을 살펴보고 있다. 2일 열리는 2016년 국화 육성 품종과 계통 평가회는 원고 B1-190호 등 20여 계통과 백강 등 10여 품종이 전시된다.

CJ 측은 중국어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한국 학생도 중국에서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컨소시엄 대학의 협력모델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며

"앞으로 외국유학생의 취업연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원광대 교수·학생 박대통령 퇴진 촉구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원광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를 규탄하는 교수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무능함과 국정농단의 심각성에 대해 달랐다"며 "최순실 사건이 권력형 인형극 정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앞에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배반했다"고 지탄했다.

또 "최순실 일파의 국기문란 행

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국정운영을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근해·순실 계이트 관련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원광대 총학생회는 "언제나 푸르기만 하던 국민의 마음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배들이 흘린 피로 세운 이 땅의 이념을 지켜내기 위해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역산=정양원기자

## 중화산동 가구거리 상생방안 찾는다

정차대 설치·인도 정비 공사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중화산동의 '가구거리'가 상인과 도로 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로 탈바꿈된다.

이는 가구거리 상인들이 자신들의 사유지를 인도로 활용키로 동의한데 따른 것으로, 상점과 방문객, 도로이용자들 모두를 위한 상생방안이라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완산구는 중화산동 서원로에 위치한 가구거리에 정차대를 설치하고 인도를 정비하는 공사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가구거리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점 방문객 차량들의 정차공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인도를 재포장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구거리 건물주들이 미관 지구 건물 후퇴선을 인도로 사용하기로 전격 동의, 상가에서 설치한 목재 데크 철거 후 그 공간을 인도 설치로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차 공간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완산구는 인도가 없는 도로에 새롭게 인도를 설치하고 노후된 인도는 재포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위하여 도로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에서는 보행자 환경 개선을 위해 서신동 당산로, 삼천1동 용리로, 효자동 효동2길, 효자4동 범안길 등 4개소에 인도설치 및 인도재포장을 시행한 바 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관광자원 활성화 벤치마킹 견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및 관광자원 활성화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 견학에 나섰다.

위원회는 전주한옥마을 인근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 북촌한옥마을과 강화도 일대 역사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북촌에 있는 갤러리와 카페, 식당 등 새로운 즐길 거리로 뜨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을 찾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살펴보고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또 강화도의 고려궁지, 광성보, 초진지 등을 탐방하며 우리시의 역사적 인물과 유적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교육청, 사무관 승진 대상자 18명 선발

전북교육청이 2017년 사무관 승진대상자 총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기획보고서 작성과 2단계 심층면접을 실시해 교육행정직 15명, 전산직, 사서직 시설직 각 1명 등 총 18명을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최종 선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업무계획, 문제 인식 및 해결, 의사소통, 조정통합 역량을 갖췄는지 등을 평가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내년 1월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승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주 종남중 강민자 ▲전주교육지원청 김미숙 ▲김제초 김미애 ▲부안교육지원청 김종기 ▲군산교육지원청 박성용 ▲위도초 배용근 ▲무봉고 안수진 ▲남원교육지원청 오다경 ▲오수고 윤홍근 ▲재무과 정철 ▲전주 조상태 ▲남원여고 채석기 ▲인성건고 최혜영 ▲정읍교육지원청 한재규 ▲교육연구정보원 허정희 ▲미래인재과 강해영 ▲교육혁신과 김은주 ▲시설과 하태훈

/고민형기자

전라북도 |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